**문항1. 인텔의 사물인터넷 시장규모 및 진입영역에 대해서 설명 하시오. (55점)**

답변 : 인텔 내부적으로는 사물인터넷을,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물에 신호나 동작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와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통신 기능을 내장해 사물들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에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 또는 환경을 일컫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센서에서 데이터 센터에 이르기까지 사물인터넷을 지원하는 ‘엔드 투 엔드(end-toend)’ 산업 전반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항2. 인텔의 사업모델을 위한 협력 계획을 설명 하시오.(45점)**

**답변 :** 삼성전자는 메모리반도체로 전 세계 1위 기업이고 인텔은 CPU로 2위 기업이다. 과거부터 양사는 경쟁관계이지만 협력관계를 이어오기도 하였다.

먼저 메모리반도체는 CPU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며 최근에도 삼성전자는 새로운 메모리 인터페이스인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Compute Express Link·CXL) D램 기술을 개발하여 인텔의 데이터센터와 서버 플랫폼에서 검증을 끝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인텔의 CPU를 다양한 세트제품에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인텔도 삼성전자의 메모리반도체를 더욱 밀어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와 같이 양사는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최근 양사 미팅으로 협력관계가 파운드리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양사 모두 파운드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TSMC가 50%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확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양사가 서로 협력한다면 TSMC의 독보적 시장점유율을 어느 정도 깨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

결과, 인텔이 TSMC에 위탁 생산을 주고 있는 물량을 삼성 파운드리로 이전 가능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인텔은 CPU를 제외한 다른 제품들은 위탁생산을 한다는 방침이며, 물론 인텔의 파운드리 팹이 완공된다면 다시 자체적으로 생산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삼성과 인텔이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된다.